

특별기고 한국인의 멋 ⑥ <골>

한국인의 멋'은 한국문화 총결산의 압축된 개성미

3. 멋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지금까지 한국인의 멋은 선과 색, 기라와 문화 및 언어의 특성에 있을 것을 말하였다. 그런데 그 특성은 이를 깨닫는 공통 분모적 특성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은근하고 보드라운 곡선미와 은근하고 소박한 색, 은근하고 여운이 있는 가락, 한(恨)이 승화된 은근하고 끈기 있는 문화와 언어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인의 멋은 은근과 끈기와 소박의 조화미가 해학과 풍류, 운치와 여운.....등의 파격에 의해 원숙하고도 우아한 개성미를 냈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런 멋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나는 그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들고 싶다.

그 첫째가 한국의 자연, 즉 산과 물 및 하늘 등의 아름다움에서 배태되었다는 것이다. 한국같이 아름다운 산과 물 및 하늘을 가지고 있거나 네 계절의 혜택을 고르게 받는 나라도 드물다. 그 중에도 한국의 푸른 하늘은 더욱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이것은 한국인인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도 그랬고 한국에서 오래 산 외국인 주교 리처드 리트 씨도 자연과 시골의 평화로운 풍경을 극찬하고 있다.

한국의 산은 대체로 높지는 않지만 은근한 곡선을 이루고 거기 미묘한 바위들이 많으며 물 또한 맑고 깨끗

하여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하늘에서 평화와 소박미를 느꼈을 것이고 거기에서 소박하고 겸허하며 평화로운 심성이 배양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심성의 특징이 바로 은근과 소박 및 끈기인 것이다.

이 밖에 또 하나의 원인이 특수한 한국의 역사성과 사회성이다. 우리나라는 동북 아시아의 한 귀퉁이에 겨우 자리 잡은 좁은 국토인 데다가 그것도 거의가 산이어서 자원이 별로 나는 것이 없어 농사가 유일한 생업으로, 가난과 노중에 남달리 시달려왔다. 거기다가 대륙과 섬나라의 강대국들의 탐바구니에서 외침의 수난을 계속 받아 왔다. 그 중에도 여자들은 남자의 억압과 혹독한 시집살이까지 감수해야 했다. 한마디로 수난과 역경 속에 비애가 응어리진 한(恨) 많은 역사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러한 시련을 겪을 때에 비관하여 좌절하지 않고 운명으로 물러서서 못을 넘기면서 다음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슬기와 낙천적인 자세를 가졌었다. 그러한 해법은 우리 민족의 풍류를 자아내는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우리 민족은 남달리 자연 속에서 노래와 춤과 술을 즐기면서 풍류 생활을 해 왔었다. 그 역사는 일찍이 화랑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풍류는 화려하

고 경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장중하거나 침울하지도 않은 내면적 세계로 파고드는 현묘하고도 은근한 멋'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본래 자연이 순응해야만 하는 농경 문화나 대륙과 섬나라의 탐바구니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탓도 있지만 불교의 원묘(圓妙)함, 도교의 현하(玄虛)함, 유교의 정대(正大)한 도(道) 등의 구심적 특징이 중화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비애의 응어리진 한(恨)을 낙천적 슬기로 승화시킨 풍류는 '은근'함을 냈었고 그 과정에서 인내 곧 '끈기'가 형성됐으며, 자연과 농경 문화의 영향으로 소박성을 냈었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러한 내재적 심성미가 단조로우나 여운 있는 은근한 기라와 춤, 은근하면서 끈기 있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낳았고, 이들이 우아한 한국인의 멋'을 이루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멋'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멋'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인의 멋'은 한국 문화의 총결산의 압축된 개성미를 알고 새로운 멋'의 창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풍류는 화려하



정동와 박사
前 재경포천시민회장

교육에세이 83

교육의 생명력은 삶에 대한 동기부여



이호연
명동초등학교 교장

때의 윤택한 감정의 눈 뜨임과 밝고 신선한 전원의 풍경과 시내물의 한가로움 흐름을 연상케 하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묘사했고, 제2악장은 시냇가의 정경으로 아름답고 평온한 들뜬 풍경을 묘사했으며, 제3악장은 오스트리아 고유의 춤곡을 기본으로 시골사람들의 정겨운 모임을 묘사했고, 제4악장은 찬풍, 폭풍우의 정경을 실감나게 묘사했으며, 마지막은 제5악장에서 목장 사람들의 노래와 축제 분위기를 기쁘고 감사에 가득한 감정을 묘사한 교향곡의 작곡가 이베그 곡명은 무엇일까요? 첫 부분부터 이미 정답을 맞힌 독자가 많을 줄로 안다. 1802년에 유포된 이 곡은 정경(靜靑)하면서 그때 자연에서 정경(靜靑)을 담은 곡으로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6번인 '전원교향곡'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자극하고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했다.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몸까지 무거워 짐을 느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는 음악 감상하는 것이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음악에 동화되어 잠시 잡념을 잊어버리고 나면, 개운한 마음이 들어 스트레스도 역눌렸던 몸과 마음까지도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점을 미리 갈파한 것 같다.

필자는 낡고 지란 국이 농촌이다. 파란 하늘에 웅장하게 피어오르는 하

얀 물개구름을 공방에 드러누워 바라보면서 소년시절에 아망을 키웠다. 그래서인지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에 대하여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특히 제 1악장의 잔잔한 음악을 듣고는 정경(靜靑)이 주를 이루는 시냇가 풍경이 그려지는 듯하다. 그리고 이 곡은 정경(靜靑)하면서 그때 자연에서 정경(靜靑)을 담은 곡으로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6번인 '전원교향곡'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자극하고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했다.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몸까지 무거워 짐을 느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는 음악 감상하는 것이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음악에 동화되어 잠시 잡념을 잊어버리고 나면, 개운한 마음이 들어 스트레스도 역눌렸던 몸과 마음까지도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점을 미리 갈파한 것 같다.

필자는 낡고 지란 국이 농촌이다. 파란 하늘에 웅장하게 피어오르는 하

안 물개구름을 공방에 드러누워 바라보면서 소년시절에 아망을 키웠다. 그래서인지 베토벤의 '전원교향곡'에 대하여는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 특히 제 1악장의 잔잔한 음악을 듣고는 정경(靜靑)이 주를 이루는 시냇가 풍경이 그려지는 듯하다. 그리고 이 곡은 정경(靜靑)하면서 그때 자연에서 정경(靜靑)을 담은 곡으로 베토벤이 작곡한 교향곡 6번인 '전원교향곡'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음악은 사람의 영혼을 자극하고 육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고 했다.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몸까지 무거워 짐을 느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는 음악 감상하는 것이다. 마음을 정화시키고 그 음악에 동화되어 잠시 잡념을 잊어버리고 나면, 개운한 마음이 들어 스트레스도 역눌렸던 몸과 마음까지도 가벼워짐을 느끼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점을 미리 갈파한 것 같다.

필자는 낡고 지란 국이 농촌이다. 파란 하늘에 웅장하게 피어오르는 하

특별기고 생태도시의 조건 ⑭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에 대한 사유



공명수 교수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경관생태학은 생태학에 환경공학을 활용하는 것인데, 현재 독일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여 유럽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1939년에 트롤(Troll)이라는 학자가 먼 거리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생태학에 접목하여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단순한 의미에서 보면, 생태학이 항공사진과 결부된다는 점에서 경관생태학은 특정한 지역을 높은 곳에서 내려보고 형상화 한 넓은 내적의 조망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경관생태학에서 항공기술과 생태학의 결합은 공간적인 측면에 한정되보다는 사회, 인문학적인 영역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확장된다.

일반적으로, 경관의 개념은 특정한 공간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조망의 의미보다는 이질적인 생물군들이 각기 다양한 차이를 형성하도록 적절한 배열하는, 다시 말해서, '공간적 차원에서의 생태계의 유기적인 연결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경관생태학은 인간의 지속 가능한 행태를 토지이용과 공간적 요소 사이에 생태학의 유기적인 원리를 접목시키고 있는 것이다.

경관생태학은 생태학과 각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결합한 높은 차원의 복합적인 의미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는 경관생태학과 관련하여 "자연관찰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경관의 외부구조와 그 속의 작은 단위와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생태학자들의 주된 관심이 소규모 단위의 국지적인 부분에 한정되어 왔기에 지역의 생태계는 공간 요소들 사이의 불균형에 의한 환경문제를 유발시켜 왔다.

토지관리와 생태계 속성간의 차이, 특히 생물종과 비생물 자원이 실제 인간 삶의 공간과 충돌하면서 환경문제가 파생되었던 것이다.

경관생태학은 단순한 경관 요소의 배열이나 배치에 머물지 않고 생태계의 적절한 분포변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관생태학자들은 공간단위에서 일어나는 교환속도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인 요인들에 다양한 생물종의 보존과 관리와 관련한 토지이용의 문제를 주요 해결과제로 삼고 있다.

이들은 서식지의 지리적 특성과 이질적인 생물종들의 경계 지점에서의 침투 가능성이나 혼종 가능성, 생물종의 속성과 비생물적 특성 사이의 교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접근한다.

여기에는 죽은 식물군이나 살아있는 생물군, 인위적인 가공물이나 아주 작은 단위의 휴 일경까지 모든 형태의 이질적인 공간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

현재 경관생태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미국과 유럽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어떤 특정한 역할을 세부적으로 분할하여 각 구성 요소별로 깊게 연구하였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어떤 한 지역의 생태계를 인문학과 사회학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체와 부분을 아우르면서 생태계를 연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의 경관생태학이 생태학에 지리학을 결합하고 있는 경향에 맞추어, 현재 미국의 경관생태학의 연구방향도 지나치게 국부적이고 세부화된 심층탐색을 지양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포천 지역은 그 어느 곳보다 경관생태학에 각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논자는 다음에 포천지역이 경관생태학에 각별히 주목해야 하는 그 이유를 살펴볼려 한다.

제4회 포천예술제 The 4th Pocheon Art Festival 2008 2008.9.20(토) ~ 9.28(일) 포천반월아트홀 대·소극장 및 전시장

주최 : (사)한국에총 포천시지부
 주관 :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연예예술인협회
 후원 :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문화원, 포천신문
 Tel : 031-531-8181 031-538-2783 Fax : 031-532-8240

일자	행사명	시간	장소	주관
9월21일(일)	제4회 포천예술제 개막식 및 축하공연 "처음처럼" 기타동아리 포천모던팝스 공연	오후 5시~7시	반월아트홀 소극장	포천예술
9월24일(수)~27(토)	<포천문학>제10집 발간 출판기념회 및 <시화전>	오후 2시~6시	반월아트홀 전시장 1층	포천문인협회
9월26일(금)	경기도립무용단 순회공연 "어울림11"	오후 7시	반월아트홀 대극장	포천무용협회
9월27일(토)	"제7회 국악한마당"	오후 5시	반월아트홀 소극장	포천국악협회
9월28일(일)	제10회 포천연극제	오후 2시	반월아트홀 소극장	포천연극협회
11월8일(일)	제11회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	오후 4시	반월아트홀 전시장1층	포천미술협회

일자	행사명	시간	장소	주관
9월24일(수)~27(토)	포천사람 시낭송회 "시화전"	오후 2시	반월아트홀 야외 및 전시장	포천문인협회

일자	행사명	시간	장소	주관
9월20일(토)	산자수명 제5회 미술실기대회	오후 2시~5시	반월아트홀 전시장 및 야외	포천미술협회
9월26일(금)	제7회 포천사람 백일장대회	오후 1시~4시	반월아트홀 야외	포천문인협회